

함 즐 함 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 : 15

352
2015. 8.9

2015년 주님의교회 표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 : 8)

● 오늘의 말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로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3:9~10)

● 오늘의 주요기사

- 2 사명특집
- 4-5 전교인 수련회 화보
- 6 창립27주년 기념 지상토론
- 7 목회칼럼
- 8 꼬마 인터뷰

● 교회 일정

8/15(토) 광복절
8/30(주)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1차)
9/1(화) 예친사 2학기 개강,
 늘푸른대학 2학기 개강
9/2(수) 겨자씨 인도자 모임 개강
9/6(주) 성찬주일,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2차)

발행인 : 박원호
편집인 : 배익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즐함울팀
홈페이지 : www.pctv.org

주님의교회



“하나님 나라, 지금 여기에” 주제의 2015년 전교인수련회가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펼쳐졌다.

비아 돌로로사, 주님 가신 고난의 길

2015년 전교인 수련회가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평창의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펼쳐졌다. 태풍 할룰라의 영향으로 호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예상보다 많은 천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참석,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한도전”, “비아 돌로로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은혜와 감동의 시간을 가졌다.

예상보다 많았던 참여인원

2010년 충주호에서 열렸던 전교인 수련회 이후, 오랜만에 중장년 뿐 아니라 청년, 청소년, 어린이까지 전교인이 동시에 참여한 이번 수련회는, “하나님 나라, 지금 여기에!”라는 주제 아래 기획되어, 애굽 시절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이르는 성경 속 장면들을 현지에 재현하면서, 그 과정을 성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지난 6월 7일부터 시작했던 접수 때에는 마침 국내를 강타했던 메르스의 영향으로 접수율이 저조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예상했던 인원을 초과한 1050명이 신청해서 오히려 숙소 조정에 고충이 있기도 했다. 첫날인 23일 태풍 할룰라의 영향으로 한반도 전체에 호우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참석자가 감소했고, 최종적으로는 950명이 참석한 것으로 잠정적으로 집계되었다.

태풍의 영향으로 진행에 어려움

몇 달 전부터 매주 주일마다 진행 팀에서는 정기회의를 갖고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십여 차례에 걸친 현지답사를 통해 프로그램 진행과 안전, 보건과 위생에 이상이 없도록 준비해왔고, 100여 명에 이르는 봉사자들이 십자가와 의상 제작 등 많은 노고를 쏟았다.

그러나 하필 수련회 첫날부터 태풍의 영향으로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첫날 야외 무대에서 공연할 예정이었던 “와디람 광야의 어느 여름밤”(챔버 공연)도 호우로 인해 실내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둘째 날 밤의 “메시아의 영광”(캠프파이어) 프로그램도 마지막 순간까지 비 그치기를 기다리다가 결국 실내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셋째 날, 이번 수련회의 하이라이트인 “비아 돌로로사”가 진행되는

시간에도 간간 비가 흩뿌리는 가운데,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따르는 성도들의 행렬이 시작되었다. 성도들의 체격에 맞게 여러 크기로 제작된 십자가를 메고 1.5km 가까운 거리의 고행을 체험하는 성도들에게, 아마도 빗방울은 주님의 고난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을 것이다. 이윽고 골고다 언덕에 이르러 세워져 있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 많은 성도들이 감격과 은혜 속에 기도를 올리고, 눈물을 흘렸다. 이윽고 모든 교인들이 순례를 마치고 성찬식에 이르렀을 때, 빗방울이 다시 거세게 듣기 시작했는데, 이 순간 모두들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임을 깨달았다. 청년과 청소년, 어린이는 같은 공간에서였지만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시간까지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수련회를 마쳤다.

함즐함울

> 4-5면 화보

2015년 사명 특집

통일의 씨앗을 평양에 심은 까닭

북한은 우리에게 여러 의미로 존재한다. 한반도에서 유구하게 핏줄을 나누었던 같은 민족이면서, 또한 지금은 서로에게 경계를 늦출 수 없는 모순의 대상이기도 하다. 아픈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날로 바래고 잊혀지는 법이어서, 우리 스스로 이제 모순 자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또 다른 모순으로 이동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가운데, 그 단단하게 굳어가는 관성의 틈새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고 가꾸는 이가 있다. 평양 노른자 땅에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데 일익을 맡았고, 지금도 그 운영에 헌신하는 최청평 집사가 그이다.

우선 평양과학기술대학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지요.

“평양과학기술대학보다 먼저 연변에 연변과학기술대학이 1991년에 세워졌습니다. 박선희, 옥한음 목사님 등 당시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와 교회가 뜻을 모아 연변 조선족에게 질 좋은 교육을 받게 하려는 생각이었지요. 그러자 북한에서 이 학교에 관심을 갖고, 북한에도 같은 교육기관을 세우면 좋겠다는 뜻이 전해져 왔습니다.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2009년에 건물을 세우고

2010년에 개교했습니다.”

이 학교에는 해마다 150명 정도의 학생이 입학한다. 첫 해에 입학한 학생들은 작년에 졸업을 했다. 일종의 대학원대학교 개념이어서, 북한의 명문 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이나 김책공과대학 등을 졸업한 우수한 학생들이 치열한 경쟁 끝에 입학한다. 북한의 부모들도 날로 발전하는 사회를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자식들을 입학시키려 한다는 것. 전 과정을 영어로 강의하기 때문에, 첫 1년은 영어공부만 한다. 이후 2~3년은 대학원 과정이다. 졸업생들은 영국과 독일 등에 유학을 가기도 하고 바로 취업을 하기도 한다. 100여명의 교수들은 절반이 미국 국적 한국인인데, 대부분 자비량으로 봉사한다.

광복 70년을 맞은 감회는 어떠신지요.

“한 민족이 갈라진 지 70년입니다. 그 시간만큼 사고방식에도 많은 차이가 생겼고, 객관적인 경제력의 차이도 괄목할 정도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 않기를 기도해야겠지요. 그러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북한 사회가 발전하고 깨어서 스스로 이 땅에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로 기도해야지요. 우리가 제공하는 교육이 북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곳으로 치면 서울 강남 정도에 해당하는 위치에 부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물론 대학건물을 지은 모든 기자재는 이쪽에서 보냈고요. 공사 중에 그 터에서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의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밖에요.”

주님의교회 초창기 멤버라고 들었습니다.

“YMCA 시절인 1990년부터 다녔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는 것은 사양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서리집사입니다.”

개인사를 더 묻고 싶었지만, 그이는 한사코 자기 자신의 얘기보다는 평양과학기술대학이 기독교에 의해 추진되었고, 지금도 중요한 동력이 기독교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음을 차분하게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지금도 그이는 연변과학기술대학과 평양과학기술대학을 후원하는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의 상임이사이자 사무총장을 맡아, 매년 각각 30억 이상이 소요되는 이 두 학교의 후원자를 찾아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 작은 씨앗이 거목으로 자라 곧 넓고 깊은 그늘을 드리울 그날이 곧 올 것임을 믿는다.

함줄함울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77

聖幕器具 (성막기구)中

揮帳(휘장, curtain of the temple)

네 장막 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퍼되 너의 줄을 길게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이사야 54:2)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히브리서 10:20)

辭典的(사전적) 意味(의미)

天幕(천막)의 재료로 사용되던 직조물을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휘장은

천막(tent)의 동의어로 사용되는데 천막의 휘장이 하늘을 상징하는 것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신약에서 휘장은 항상 성전의 휘장 즉 至聖所(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휘장을 가리키는데 특히 히브리서에는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언급된다.

文字的(문자적) 意味(의미)

★揮(휘두를 휘, 흘을 휘): 손을 상징하는 手(손 수)의 변형체 扌(재방 변)에 군대 또는 진을 친다는 뜻을 지닌 軍(군사 군, 진칠 군)을 합쳐 '지휘관이 군사들에게 명령하기 위하여 손을 휘

두른다'라는 글자를 만들었다.

★軍(군사 군, 진칠 군): 무경 또는 덮는다는 뜻을 지닌 冃(덮을 맥, 민갓머리)과 무리, 무기, 전차의 뜻이 있는 車(수레 거, 수레 차)를 결합하여 '위장시설을 덮어 전차나 무기를 감춘 집단이 군사들이다'라는 글자가 되었다.

★帳(장막 장, 휘장 장): 한 폭의 천을 상징하는 巾(수건 건)과 길다는 뜻의 長(긴 장, 어른 장)을 결합하여 '한 폭의 천을 길게 드리워 만든 가리개가 장막 또는 휘장이다'라는 의미가 되었으니 오늘날 커튼을 말한다.

함줄함울

섬기는 손 22



전교인 수련회 비 오는 날
비아돌로사 십자가길 걷고
골고다 십자가 체험 후
성찬식 전 성수로 씻은 성도의 손
정성껏 마른 수건으로 닦는
목자의 섬기는 손

〉'섬기는 손'은 사역 현장의 풍경을 담아 함께 하기를 권유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함줄함울

해외선교

미션 퍼스펙티브스(PSP) 선교 교육

네번째 맞는 해외 선교를 위한 전문가 교육과정

퍼스펙티브스(“관점들”이라는 의미) 선교훈련은 주님의교회 해외선교 분과위원회와 선교한국 파트너스에서 주관하는 선교훈련으로 그 단어가 의미하듯 성경과 선교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도록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여러 선교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선교훈련들이 있지만 선교를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이라는 4가지 관점에서 조망함으로써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선교 신학자 랄프윈터 박사에게 의해 창안된 이래로 전 세계 곳곳에서 이 과정이 개설되었고 국내에서는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교회에서는 2012년 시작하여 올해 4회 째(371기)를 맞고 있습니다. 9월 3일(목)부터 11월 26일(목)

까지 12주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가량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해에는 50여 명의 성도들이 수료하셨으며 이 교육을 위해 15분의 스텝들이 온 힘을 다하여 섬겨주셨습니다.

현장 사역 경험이 풍부한 선교사들의 강의와, 튜터의 강의 정리, 양화진 선교사 묘역 혹은 이슬람 사원 방문 등을 포함한 조별 특별 활동 등이 12주 동안 이어집니다.

지난 1회~3회를 진행하면서 훈련 과정이 다소 힘들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올해부터는 질문지 내용과 교재 읽기의 양이 1/3로 줄어들고 시험도 없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보다 쉬운 핵심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선교이야기, 선교학교, 선교대학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선교 훈련 과정들이 주님의교회 안에 있었지만 퍼스펙티브스 훈련은 그



올해 네번째 맞는 미션 퍼스펙티브스 교육이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어떤 선교 훈련 보다도 심도있고 포괄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료하신 분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귀한 기회였다고

말씀하시며 주위 분들에게 강추하신다고 합니다. 선교에 관심 있으신 성도 누구든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선교분과위원회

사역보고

미자립 교회 청소년 위한 여름 축제

제7차 청소년 초청 여름신앙캠프



2015년 전국교회청소년수련회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1일까지 열렸다. 여름 수련회를 갖기 어려운 미자립교회 청소년들을 위한 이 행사는 매년 주님의교회 청소년사역원에서 주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았다.

청소년사역원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초청 여름신앙캠프가 7월 30일(목)부터 8월 1일(토)까지 주님의교회 중예배실과 수련실을 중심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나는 주의 친구’라는 주제로 전국 8개의 교회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했습니다.

뉴웨이브의 힘찬 찬양과 함께 시작된 예배는 청소년들의 열기로 뜨거워졌고, 전경호 목사님(한국뉴욕주립대학 교회)의 설교로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전국교회수련회는 개척 교회 아이들이 다시 한 번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교회와 학교와 가정에 하나님나라 확장하는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교회를 통해 한국교회의 다음세대가 굳건히 세워짐을 경험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서아령 목사

비아 돌로로사, 주님 걸었던 길

비아돌로로사 (Via Dolorosa)의 길을
장엄한 여정의 길을 다녀왔습니다.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순례자의 길, 영광의 길을
자유를 향한 여정,
생명을 향한 여정,
사명을 향한 여정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들은 머무는 백성이 아니라
순례하는 백성이었습니다.

함께 걸어가며
손을 잡고,
찬송하고,
그리고 춤추기를 원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하고
엄마 아빠도 함께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함께하는
복된 여정이었습니다.

주님도 함께 걸어난
여정이었습니다.
애굽(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긴 여정을
출발을 하였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개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울림 한마당에서
광야체험을 하였습니다.

시내산 언약예배를
저녁예배로 드리고
와디람 광야의 어느 여름밤
은혜로운
실내악 챔버 공연을
보고 들었습니다.
주님의 숨소리를
듣는 듯하였습니다.

둘째 날,
12지파가 연합하여
전체 새벽 경건회를 드리고
은혜로운 특강으로
사사와 동행하는 길을 걷고

쉽과 기다림 속에서
메시아를 대망하며
나눔의 장을 준비하여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구별 무한 도전
함께 연극도 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생애를 다시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며

비가 와서
밖에서 하지 못한
캠프파이어를
영상으로 즐겼습니다.

야식으로 먹은
삶은 옥수수맛을
음미하며 귀한
둘째 날 저녁을 보냈습니다.

셋째 날,
부활의 아침
교구별 아침 경건회를 보내며
교구별로 순서대로
비아 돌로로사(십자가의 길)를
걸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묵상에 잠길 때
눈물이 흐름도 느꼈습니다.

십자가 체험 후
손을 닦고
성찬식에 참여하여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지금 여기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며

사명과 함께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오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글함글



우리 모두 나의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 함을 느낀 십자가 체험.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리라, 청년부의 십자가 체험.



예수님은 이 무거운 십자가를 어떻게 메고 걸어가셨을까.



개회예배로 2015 전교인 수련회가 시작되었다.



비아 돌로사의 온 길을 마친 후 손을 씻고 맞은 성찬식.



이호진, 전성수, 유영권, 한성열 등 유명 강사와 함께 한 사사와의 동행.



구역별로 송씨와 단합을 겨룬 어울림 한마당.



와디람 광야의 어느 여름밤은 호우 때문에 실내에서 진행되었다.



수련회에 함께한 청년부가 숙소 앞에서 한 컷.



구역별로 발표한 예수님과 함께 하는 무한도전이 특히 많은 호응을 받았다.



예수님의 고행을 내가 대신할 수 있을까, 비아돌로사.



무한도전의 서막을 연 청년부 공연은 특히 박수를 받았다.



수련회에 참가한 청소년부가 모두 모였다.



은혜와 기도로 충만했던 청소년들만의 밤.



나도 알아요, 예수님의 사랑, 나도 알아요, 예수님의 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우리의 반짝이는 눈망울 앞에 있어요.



음, 일식 오찬이 나쁘지는 않군. 그러나 역시 집밥이 최고였어.

창립27주년기념 특집기획 : 함글함글 지상토론 “주님의교회, 미래를 생각한다”

‘부정의 배제’에서 ‘다양의 수용’으로

주님의교회 정체성의 내면에 대한 제언

창립27주년기념 특집기획 “주님의교회, 미래를 생각한다” 그 첫번째 글을 이번 호에 신습니다. 이 글, 또는 다음 주제에 대한 여러 의견을 보내 주시면 다음호에 수록하여 같이 생각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주님의교회 공동체 구성원 뿐 아니라, 한국 교회에 대해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의견과 기고를 부탁드립니다. hamletter@daum.net 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발제 순서

1. 주님의교회 정체성의 내면

임기제, 무기명헌금, 50대 50, 교회 건물의 무소유, 청소년 사역 등 주님의 교회의 제도로 표현된 정체성에 대한 배경사, 철학, 정신, 신학적 타당성 등을 분석해 봅니다.

2. 교회사적 의미로 본 주님의교회

한국교회사를 배경으로 주님의교회의 형성과정과 영향 관계를 통사적으로 살펴봅니다.

3. 교회 안에서 본 주님의교회

주님의교회 내부에서 진행되는 여러 상황, 관행, 공동체의 실천적 일상 등을 정체성에 비추어 살펴봅니다.

4. 교회 밖에서 본 주님의교회

교회 밖 누군가가 바라보는 주님의 교회, 즉 인접교회, 교단, 학교 등과의 관계에서 주님의교회의 의미와 평가에 대해 살펴봅니다.

5. 사회적 공간에서의 주님의교회

한국 당대 사회와의 관계에서 바라본 주님의교회의 역할과 과제를 알아 봅니다.

6. 주님의교회의 바람직한 미래

이런 여러 상황과 관점을 배경으로, 주님의교회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향해야 할 미래를 여러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주님의교회 정체성의 역사

주님의교회를 다른 교회와 구별할 수 있게 하는 내면적 가치를 주님의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988년 창립된 이후, 주님의교회의 여러 구성원에 의해서, 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몇 가지 제도가 형성되어 왔다. 지난 2014년 발간된 <주님의교회 25년사>에 의하면, 1988년 6월 24일 열린 교회창립준비기도회에서 주님의교회의 창립정신 중 하나인 ‘50대 50’이 결정되었는데, 헌금사용에 있어 주일헌금 중 50%는 대외적인 선교와 구제에 각각 50%씩 사용한다는 원칙이었다. 교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했을 이 원칙에 대한 역사적 뿌리는, 초기 종교개혁자 중 하나이며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칼빈은 교회 수입의 분배에 대해서 “교회법은 명백하게 사분지 일을 빈민들에게 배당하고 또 사분지 일을 감독에게 배당해서 손님 대접과 기타 자선사업에 쓰게 했으며, 교회와 건물, 기타에 배당된 나머지도 필요한 때에는 빈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주님의교회의 또 다른 중요한 창립정신은 아마도 ‘주님의교회’라는 이름 그 자체일 것이다. 많은 교회들이 특정인의 교회로 전락하는 것을 경험했던 초기 교인들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가 바람직하다고 여겼고, ‘주님의교회’로 명명하면서 이를 가슴에 새겼다.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실천하는 제도로 고안된 것이 ‘임기제’일 터이다. 임기제의 경우는 창립 후 1년 정도 경과한 후에 제안되어, 당회원에 해당하는 항존직의 임기제

형태로 정착되었다. 또 다른 제도가 1992년부터 시행된 ‘무기명 헌금’이었는데, 이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역대상 29:14)의 정신에 따른 것이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정체성이 된 ‘예배당 무소유’의 경우는,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교회의 본질을 건물로 오인해 교회 건축에 몰두하게 될 때 교회는 부패하게 된다. 주님을 중심에 모신 공동체가 참된 의미의 교회이니, 교인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공동체의 공감을 얻었고, 이후 주님의교회를 구별하게 해주는 중요한 원칙이 되었다. 지난 27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형성되고 정착된 이 제도들은 2012년부터 시행된 정관에 명문화되었다.

다시 돌이켜봐야 할 우리의 내면

그러나 창립 27주년이 지난 지금, 이 모든 제도가 정착된 상태에서 우리는 과연 이 제도의 내면에 담긴 정신을 지금 여기의 상황에 비추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창립 당시 존재하던 교회의 외형적인 성장과 교회 권력의 사유화에 따른 갖가지 부정적 징후들이 지금-여기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님의교회가 이들을 배제하기 위해 만들었던 제도들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혹시 우리가 그 지점에 멈추어 서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교회가 성장하고 제도가 정착되자, 우리 자신 거기에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낮은 곳으로 향하던 사랑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다른 종교 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그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의식(儀式)들은 모형과 설계도가 건축과 장인 사이에서 차지하는 것과 동일한 지위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차지해야 한다. 의식들은 영구적인 구조물은 아니지만 그것들 없이는 아무것도 세울 수 없고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준비된 것이다. 구조물이 완성되면 모형과 설계도는 버려진다. 어떤 사람이 평생 설계도와 모형에만 집중하고 정작 구조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모두들 그를 어리석다 할 것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창립 시절부터 거의 한 세대가 지난 지금, 한국 사회는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와 혼란을 겪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늘 함께하시던 ‘낮은 곳’의 범주도 훨씬 다양해졌다.

한 세대 전, 대부분 경제적 문제였던 사회적 약자가 이제는 문화적, 인종적, 국가적, 사상적, 종교적, 정치적, 젠더적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상태에서, 교회가 이웃들에게 가져야 할 관심의 방향도 다변화되었고, 그것을 위한 제도나 원칙, 실행 방안에 대해서도 훨씬 폭넓고 유연한 상상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런 가운데 주님의교회 정체성의 본질은 무엇일까에 다시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est)는 개혁교회의 표어는 지금-여기에서도 유효하다. 주님의교회의 창립 정신은, 바로 ‘개혁의 계속’에 의해 미래에도 구현될 것으로 믿으며, 이제는 ‘부정의 배제’를 위한 제도 뿐 아니라, ‘다양의 수용’을 위한 내면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함글함글

목회 칼럼

기다려주는 마음

한 여름에 봄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미 봄은 지났지만, 수년 전에 봄을 지내면서 느낀 단상 하나가 떠오릅니다. 가족과 함께 봄이 찾아오는 광경을 보고 싶어, 경남 양산에 있는 통도사를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따스한 햇살과 싱그러운 공기, 감미로운 바람이 내 몸과 영혼을 맞아 주었습니다. 그곳에 들어섰을 때, 봄기운을 가장 빨리 알리는 꽃으로 유명한 매화가 희고 빨간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유심히 바라보니, 어떤 꽃은 활짝 피었고 어떤 꽃은 반쯤 피어 어떤 꽃은 아직 피지 못한 몽우리 상태로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매화와 저를 번갈아 바라보며 “무슨 깨달음이 없느냐?”며 물었습니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무슨 깨달음?” 그리고 “어떤 꽃은 활짝 피었고 어떤 꽃은 아직...” 이렇게 대충 둘러대며 아내의 질문을 무심히 흘려보냈습니다.

지금은 아내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활짝 핀 꽃도, 반쯤 핀 꽃도, 아직 몽우리 상태의 꽃도 모두 한 나무에서 피어나는 꽃들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어떤 꽃은 빨리 어떤 꽃은 늦게 꽃을 피우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

한 것은 그 꽃들이 한 몸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저의 마음에 깃든 생각은 기다림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언젠가는 꽃은 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늦게 꽃이 핀다고 하여 참지 못하고 그 가지를 잘라 버리면 그 가지에서는 영원히 꽃을 피우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 따라 빨리 꽃을 피우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어떤 사람은 느리게 꽃을 그것도 화려하게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예수께 붙어 있고 그 안에 거한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예수님

으로 인해 활짝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기다림으로 지켜보지 못한다면 그는 꺾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열매 맺음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닐까요?

최방은 목사

사역 현장

오병이어, 식탁의 기적 만들기



지난 7월부터 한달 째 진행되고 있는 주방봉사자 캠페인. 아직도 남아 있는 많은 빈 칸이 안타깝다.

지난 7월 12부터 로비에서 계속되는 캠페인이 있다. 이름하여 “오병이어, 식탁의 기적 만들기”.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의 감격과 확신,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라고 써져 있는 조출한 포스터가 또한 교

회 곳곳에 발견된다. 주님의교회 모든 구성원이 아마도 가장 사랑하는 국수를 만드는 팀, 주방부의 자원 봉사 모집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그 동안 전담 봉사자와 함께, 겨자씨가 돌아가면서 봉사해 왔으나, 여전히 부족한 봉사자를 보다 새로운 방식의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신청받고 있다. 누구든 어떤 시간이든, 힘든

일과 쉬운 일을 골라서 시간 되는 만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2일 현재 현황판에 보면, 아직도 빈 칸이 많이 보인다. 행하니 비어 있는 그 공간들이, 마치 아직도 충일하지 않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증거하는 듯 안타깝다.

함줄함줄

정신학원에 깃든 한국기독교의 역사 19

지정학교로 승격

일제의 교육령을 따르지 않은 정신여학교는 졸업생의 상급학교 진학이 제한되었다. 재학생들은 동요했고, 지원하는 학생도 줄었다. 학교는 점점 어려워져갔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일제에 대한 불만이 늘어갔다.

그러자 일제는 총독부에서 제시한 재정 등의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여자고등보통학교로 승격하지

않고도 성경 등을 가르칠 수 있으며 졸업자에게 상급 학교의 입학 자격을 주는 지정학교 제도를 만들어 발표했다.

학교는 지정학교로 승격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 1931년 이 운동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여 재정은 서울노회, 동창회, 경성의 유지들이 부담하기로 하고 졸업생 대표 김필례가 선교부의 승인을 얻었다. 루

이스 교장은 안식년을 맞아 5개월간 미국에 머물면서 학교 재정을 위한 기금을 모금해오기 위해 출국한다. 또 1933년에는 윤치소, 김성수, 송진우, 조만식, 여운형, 함태영, 유각경, 방신영, 신의경 등 22명이 참여한 정신여학교 유지위원회가 발기된다.

1935년 5월 9일 지정학교 승격을 위해 10년간의 노력 끝에 지정을



정신여학교의 수업 광경

받아 관보에 고시되었다.

이희천 정신여고 교장

꼬마인터뷰 : 청년부 찬양 지휘한 김명이 청년

꽃다운 연주, 로비음악회

지난 7월 19일 예배가 끝난 로비에 발랄하고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졌다. 보컬과 피아노, 바이올린, 트럼펫 등으로 구성된 청년부가, <사랑해요><시편1편> 등의 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열정적이면서도 정확하고 꼼꼼한 지휘가 돋보였던 지휘자 김명이 청년을 잠깐 만났다.

“이름은 ‘로비 음악회’인데요, 2010년, 2011년에 청년부 주최로 두 번 한 적이 있어요.” 이 ‘로비 음악회’의 역사에 대한 짧은 답이었다. 전공자도 있고 직장인도 있는데, 뜻을 같이 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두 달 전부터 연습을 했다.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려움은 없었고요, 저희 찬양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 성도님들도 청년들이 이렇게 함께 하려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격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참 착한 설명이 덧붙여졌다.

모태신앙인데 부모님을 따라 고 3 때부터 주님의교회에 출석했고, 지금은 네덜란드에서 합창 지휘를 전공하고 있다. 로비음악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싶은데, 유학 중이라 좀 어려움이 있다는 스물아홉살이 청년, 음악만큼이나 참여

함글함글

교회단신

2015년 주님의교회 유학생 세례 입교

2015년 7월 26일 유학생을 위한 특별 입교 및 세례식이 진행되었다. 짧은 방학생활 중 귀국하여 2주간의 교육을 받고 입교자 1명 세례자 2명이 안수를 받았다.

입교

이준학

세례

민성우 장효주

알립니다

▶ 신앙상담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쉽니다.

▶ 퍼스펙티브스 해외 선교 교육 프로그램

9월 3일 (목) ~ 11월 26일 (목) 매주 목요일 오후 7시~10시

제3집회실

문의 : 손영익 안수집사(010-2287-9258)

▶ 유소년 축구모집

9월 6(주일) ~ 11월 29일(주일) 오후 1시~3시

5세~13세(6학년)

회비 3만원(간식비 등)

문의 : 교회 1층 사무실(010-3717-9485)

▶ 주님의교회 대내외 하반기 장학금 신청

8월 16일(주일)~ 8월 23일(주일)

문의 : 권성호 안수집사(010-3726-1444)

아기나들이



전재현 아기 2015년 7월 12일 3부 예배

1.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이 많은 아이로 자라길 기도합니다.
2.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실천하고 나눔을 행하는 아이로 자라길 기도합니다.
3. 언제나 건강한 아이로 자라길 기도합니다.

아빠 전기욱, 엄마 염기영, 2015년 3월 23일생



황서윤 아기 2015년 7월 19일 2부 예배

1. 서윤이가 주님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2.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과 화평하게 관계하는 서윤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3. 우리 가정이 주님을 참되게 섬기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빠 황신웅, 엄마 이남경, 2015년 3월 8일생



송예준 아기 2015년 7월 26일 3부 예배

1.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을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기도합니다
2. 예준이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3.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기도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빠 송준영, 엄마 허소정 2015년 4월 3일생

교회 달력에 대한 의견을 여쭙습니다



주님의교회 출판홍보팀에서는 매년 연말, 탁상형 교회 달력을 기획, 제작하여 교회 공동체 여러분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진 오늘날, 달력의 쓸모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한편, 교회력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는 이 유용한 달력을 좀 더 잘 만들어서 널리 쓰이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2016년 달력을 기획하기에 앞서, 달력의 쓰임새와 모양에 대한, 공동체 여러분의 재기발랄하고 창의적인 상상력을 모아보려 합니다. 쓸모와 모양과 소재에 대한 여러분의 기발하고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8월 31일까지 hamletter@daum.net 으로 보내주세요.

출판홍보팀